
도시와 기억 아카이브 3
대구 복구편

“도시 사람들,
사람이 빛나는 도시 제작법,
대구 복구”

행복복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2019. 7. 5 ~11. 22)
“2019 행복복구 사람 IN 프로젝트”의 사례집입니다.

들어가며

“도시 사람들,
사람이 빛나는 도시 제작법,
대구 복구” 7



Part 1 도시의 얼굴 11

- 1. 지역문화와 이야기의힘 _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10
- 2.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 _ 커뮤니티스 연구팀장 김아영 12
- 3. 지역문화 조사(브레인라이팅 실습) 0
- 4. 지역문화와 걷기(커뮤니티맵핑 실습) 0
- 5. 도시의 자원 찾기 (자원조사 실습) 0
- 6. 마을별 기획서 작성 0

Part 2 사람의 표정 0

- 1. 복구 마을공동체 브리프 행복한마을공동체 복구인 김지형 대표 0
- 2. 칠곡 인문학마을 특강 지역문화기획자 이재민 0
- 3. 경대 서문에서 세상 결눈질하기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대표 0
- 4. 팔거천과 여성영화제의 공통점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전) 장지은 대표 0
- 5. 기획은 Now Here 정신 (사)인디053 신동우 기획팀장 0
- 6. 좋은 먹거리와 식문화 강북희망협동조합 강혜진 대표 0

Part 3 일상의 기억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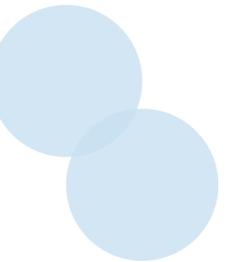
- 1. 르포 인터뷰 ‘구암동 고분군’ 0
- 2. 축제 탐방 ‘금호강바람소리길’ 0
- 3. 문화,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0
- 4. 미디어라는 공간 (주)레브 신무환 대표 0
- 5. 도시 감성 디자인 만복기획 정유영 대표 0

Part 4 당신의 이야기 0

- 1. 이야기 제작 공방 0
- 2. 성과 공유회 0
- 3. 수료식

나가며

“당신을 기억하는 도시”



“도시 사람들, 사람이 빛나는 도시 제작법, 대구 복구”

도시는 기어코 물을 건넜다.

대구 복구의 경계는 다양하다. 지리적 경계만큼이나, 역사적 경계점 또한 강렬하리만큼 그 자취가 다양하다. 금호강이 칠곡이라고 불리는 강북 지역과 침산동 일대의 강남 지역을 가른다. 80년대로만 돌아가도 복구 칠곡지역은 개발 이전이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1981년 칠곡군 칠곡읍을 편입했다. 도시가 스멀스멀 몸짓을 키워가면서 태고적부터 수 백 만년을 건뎠던 산과 들은 직선의 것들로 채워졌다. 북남, 동서로 그어진 선들 위로 건물이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도시는 이제 수많은 행정적 경계를 만들어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아파트 하나는 거뜰히 살 수 있던 행복한 시대. 도시는 기어코 물을 건넜다.

도시의 성장, 몸으로 겪으며

사람들의 경계도 다양하다. 참여 시민의 100%가 외지인이다. 토박이는 없다. 다시 한번 물어봤다.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영천 등등. 이 정도면 도시화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혈혈단신으로 도시로 흘러들어와 열심히도 일했다. 8월의 무더위에 3단지는 정말이지 기름통을 품은 불 같았다. 아이들은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했다.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에 사람들의 몸은 굳어갔다. 그럼에도 마음만은 따뜻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다 가끔은 마음도 굳었다. 칠곡 지역에 택지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갔다. 굳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이사를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도시의 성장을 손수 몸으로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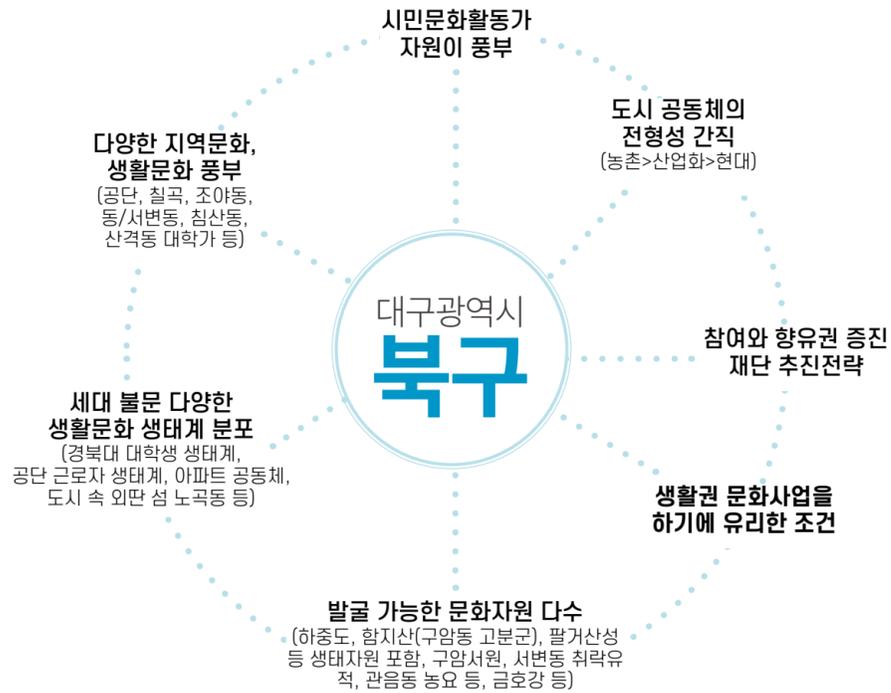
사람이 빛나는 도시 제작법

도시와 함께 살아온 시절이 그대로 남아있다. 복구가 아기일 때부터 청소년이 되었다가 이제는 엄연한 청년의 느낌이 나는 듯하다. 시간이 조금은 아쉽다. 그러다 주변을 살펴본다. 20여명의 참여자는 평범한 복구 시민이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나와 비슷한 경험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다. 문화를 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이 빛나게 하는 법이라고 하자. 그래야 지난 우리의 25번의 만남이 빛날 수 있을테니 말이다. 다음은 사람이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들이다. 복구가 빛나기를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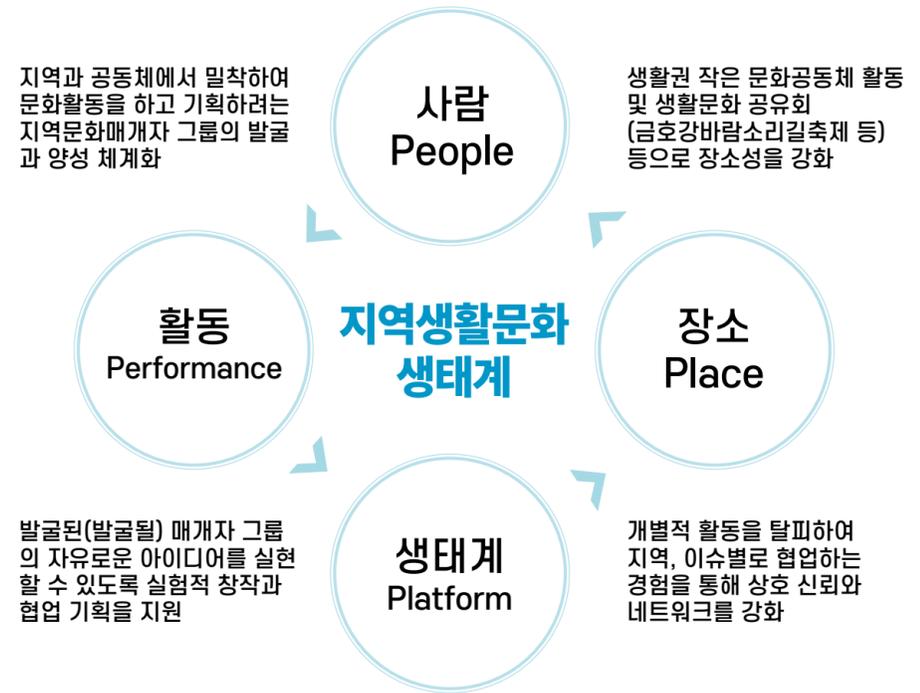
1.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생활문화 친화도시로 !!
(세계적 도시는 골목과 마을이 살아있다.)

2. 프로그램 개념도

지역문화매개자는 도시창조계급과 같다.
(사람을 모으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계와 장소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



지역문화를 실행하는 것보다 **발굴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지역문화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요함)



3.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순번	강사명	소속 / 직위	역할	비고
1	강구민	기억과아카이브 대표	주강사(기획) 및 전체 운영	비고 참여진
2	신무환	(주)레브 대표	퍼실리테이터 및 제작 특강	
3	정유영	만복기획 대표	보조강사 및 편집 지원	
4	김지형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 대표	북구 지역 문화활동 소개	특강 (2명)
5	이재민	지역문화기획자	지역문화 기획 사례	
6	김아영	코뮤니타스 연구팀장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	지역 전문가 (5명)
7	서민정	내마음은콩밭 대표	지역문화 기획자 특강	
8	장지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전)대표	지역 활동가 특강	
9	신동우	(사)인디053 기획팀장	지역문화 실행 특강	
10	강혜진	강북희망협동조합 대표	지역 사회적기업가 특강	

※ 교육 참가자의 현장 이해도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 전문가 특강을 적극 활용함

4.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기대
효과

- 지역문화매개자의 지역문화 이해도 제고
- 현장형, 실습형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 체계적인 커리큘럼 마련 통한 향후 운영 체계 마련

파급
효과

- 북구형 생활문화 생태계 기반 마련
- 마을 단위 생활문화 생태계 마련
- 생활문화 관련 사업 발굴

프로그램 일정

prologue 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			
1	사업 소개	소이랩협동조합 김형준 팀장	7/5(금) 14~17시
2	마을만들기 이론	소이랩협동조합 김형준 팀장	7/8(월) 14~17시
3	마을만들기 사례	소이랩협동조합 김형준 팀장	7/12(화) 14~17시
4	북구 마을공동체 특강 (김지형)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인 김지형 대표	7/16(화) 14~17시
5	지역문화와 이야기의 힘 (강구민)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7/23(화) 14~17시
step1 조사/분석			
6	인문학마을 특강 (토론)	지역문화기획자 이재민	7/30(화) 14~17시
7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 (토론)	코뮤니타스 연구팀장 김아영	8/6(화) 14~17시
8	지역문화 조사 (브레인라이팅 실습)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8/13(화) 14~17시
9	지역문화와 걷기 (커뮤니티맵핑 실습)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8/20(화) 14~17시
10	기획서 작성 (자원조사 실습)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8/27(화) 14~17시
step2 기획			
11	마을별 기획서 작성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9/3(화) 14~17시
12	지역문화 기획자 특강 (토론) *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대표	9/10(화) 14~17시
13	지역 활동가 특강 (토론)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전) 대표/ 대구여성영화제 활동가 장지은	9/17(화) 14~17시
14	지역 답사 (구암동 고분군)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9/24(화) 14~17시
15	축제 탐방 및 토론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9/28(토) 12~15시
step3 실행			
16	지역문화 실행 특강 (토론)	(사)인디053 신동우 기획팀장	10/1(화) 14~17시
17	지역 사회적기업가 특강 (토론) *	강북희망협동조합 강혜진 대표	10/8(화) 14~17시
18	지역 문화와 콘텐츠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10/15(화) 14~17시
19	미디어/영상 특강	(주)레브 신무환 감독	10/22(화) 14~17시
20	디자인/편집 특강	만복기획 정유영 디자이너/대표	10/29(화) 14~17시
step4 공유/환류			
21	문화활동가 실습 1 (기획서 쓰기)	통합 운영	11/5(화) 14~17시
22	문화활동가 실습 2 (조사하기)		11/8(금) 14~17시
23	문화활동가 실습 3 (제작하기)		11/12(화) 14~17시
24	성과공유회		11/19(화) 14~17시
25	수료식		11/26(화) 15~18시

* 야외행사나 현장답사 수업

Part 1 도시의 얼굴

1. 지역문화와 이야기의힘 _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2.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 _ 코뮤니타스 김아영 연구팀장
3. 지역문화 조사(브레인라이팅 실습)
4. 지역문화와 걷기(커뮤니티맵핑 실습)
5. 도시의 자원 찾기 (자원조사 실습)
6. 마을별 기획서 작성

1. 지역문화와 이야기의 힘

2019. 7. 23(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문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이야기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개입과 소통을 의미한다. 즉 발화가 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없이 시간과 공간으로 절단되고 파편화되는 주체 사이에는 메시지가 끼어들 틈이 없다. 지역문화는 그래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은 이야기가 힘을 가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큰 역사는 거대하긴 하지만 그만큼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하는 성질이 있다. 또한 작은 이야기는 지역이나 공동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승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개입시킬 여지를 충분히 열어준다. 작은 경험과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구체성을 장소를 기반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작지만 현실적인 문화적 행위를 자극하고 이끌어낸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대중문화와 메스미디어의 시대에 지역문화와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대중문화와 거대 서사가 메꾸지 못하는 일들이 아직도 있고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작은 이야기는 지역문화와 만날 때 그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거대한 서사를 작은 이야기로 대체하는 일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다. 우리네 삶이 즐겁지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냐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안 그러면 나의 이야기도 너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도 잊혀질 것이다. 이젠 경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기억되는 집단과 기억되지 않는 집단 중 누가 더 문화적인가?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을 기억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부터 하였다.

제작법

- 지역문화, 이야기 콘텐츠 특강
- 지역문화 사례, 구술 콘텐츠, 공동체, 작고 소중한 문화

-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 하기 (5분 내외)
- 이름, 태어나고 자란 곳
- 지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
- 마을(동 단위, 생활권)에서 해보고 싶은 일
-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행사,
- 가족, 이웃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2. 생활문화 개념과 정책

2019. 8. 6(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커뮤니티스 김아영 연구팀장

활동 내용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덕을 본게 있다면, 대중문화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TV는 기존의 문명 사회에서는 결단코 누리지 못하던 정보 공유의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많은 대중문화를 우리에게 선사했다. 그리고 정부 중심으로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충분히 그럴만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화를 수혜하고 향유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보내왔다. 생산과 소비가 구별되는 것이다.

대중문화, 중앙 중심의 문화의 이면에는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 사람은 지역이라는 지리적 범위에서 문화적 관계와 활동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문화 생활을 영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TV는 서울, 경기도 중심의 콘텐츠를 송출해왔고 우리네 작은 문화활동은 TV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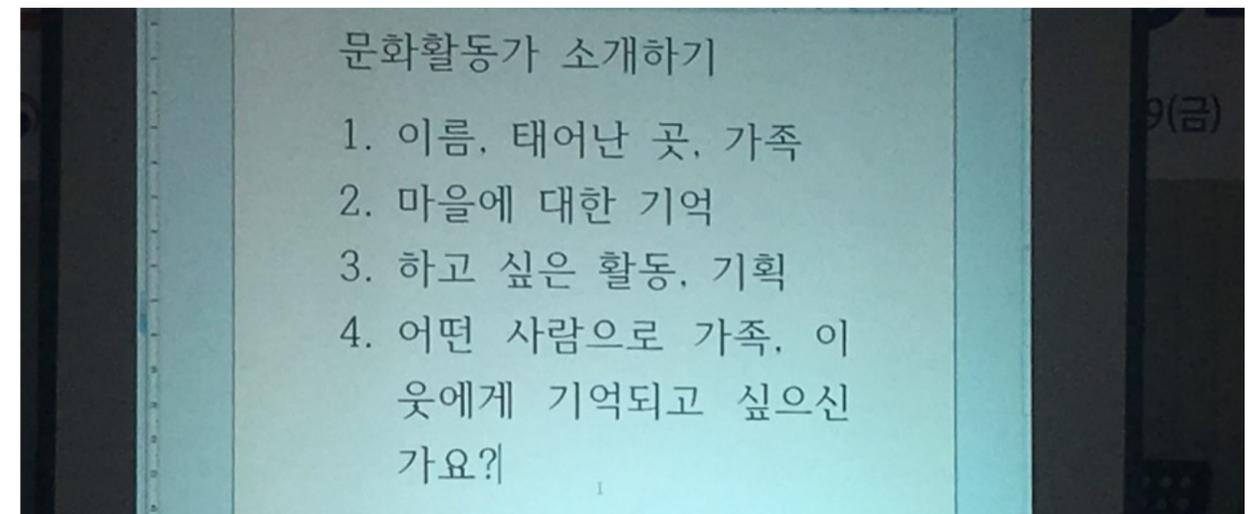
생활문화에 대한 담론과 논의가 있다. 생활이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부터. 생활이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등등.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 처럼 말이다. 지역문화, 문화활동가는 생활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주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생활문화를 여전히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문화동아리 활동으로 한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난타도, 오카리나 연주 동아리도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다. 문화란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다.

2014년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상에서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제2조(정의)) 자발성과 일상성이 중요한 개념이며 그 외에도 무형의 것까지 포함한다.

이에 우리는 생활문화의 정의, 개념,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도와 관점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제작법

- 생활문화의 개념과 역할
 - 생활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지역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시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살펴본다.
- 생활문화 사례
 -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아리 등 생활문화를 이슈로 지역,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문화적 활동으로 이어나가고 확장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적용해본다.
-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
 - 생활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본다.



3. 지역문화 조사 (브레인라이팅 실습)

2019. 8. 13(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지역문화, 도시재생, 공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정해진 시간에 취합하여내는 것이 관건이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등의 기법은 창의적이고 학습형 회의를 위한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적 창의적 발상 기법으로 집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된 아이디어 목록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브레인라이팅 기법은 [Battelle Institute](#)에서 개발된 기법들 중의 하나이다. 6~8명의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는다. 참가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네 개 적으면 바로 테이블의 가운데에 놓는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반드시 종이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도 된다. 참가자들이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던 종이를 테이블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종이 중 하나와 바꾸고 그 종이에 적혀있는 아이디어에 편승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낸다. 결국 모든 참가자들은 테이블 가운데에 쌓여있는 종이 중 하나를 자기 것과 바꾸어야 한다 ([Higgins, 1994](#); [Lumsdaine, 1996](#); [VanGundy, 1992](#)). 이 기법은 브레인라이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이어서 옆사람이 종이를 건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출처 : 위키피디아)

동네별, 주제별 모둠의 브레인라이팅은 첫째,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용이하고, 둘째 상호간의 입장과 관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 효과적이며, 셋째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가치가 아닌 구조와 주제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주제별로 이러한 상호학습 테이블을 만들어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제작법

- 사는 마을(동네, 동)별 모둠 토의
 - 주제 선정 (4개) : 우리 동네 문화 문제점, 마을 자원, 하고 싶은 활동, 희망하는 우리 동네
- 브레인라이팅
 - 돌아가며 포스트잇에 자기 생각을 적되 같은 모둠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산적으로 적는다.
- 모둠별 발표
 - 모둠별 내용을 전지에 옮기고 주제별, 세부 내용별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발표하여 공유한다.



4. 지역 문화와 걷기 (커뮤니티 맵핑 실습)

2019. 8. 20(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2014년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공동, 공통의 지역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지역문화는 그래서 마을, 로컬(Local)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로컬리티’는 ‘인간이 자신의 삶터(로컬)에서 어떻게 사유하고 표상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가’(차윤정, 2017)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현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표상-형성하는 미래적 관점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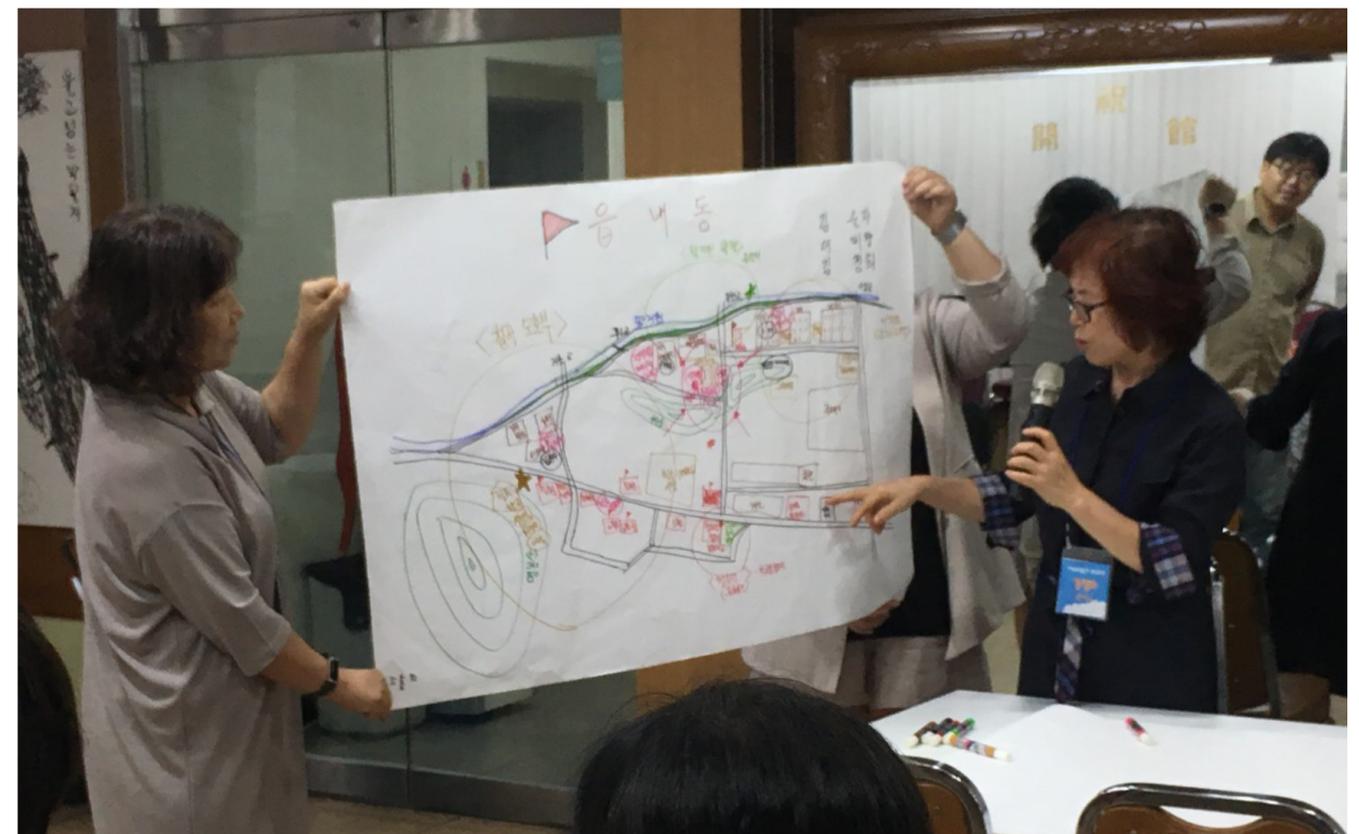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 마을문화는 그간 감춰있던 로컬의 문화를 사유-표상-형성하는 것, 즉 걷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발터벤야민은 도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야말로 낯선 장소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이며, 그것을 통해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물과 역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삶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용선, 2014) 도시의 과거를 본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시작인 셈이다.

그래서 최근 마을만들기 등에서는 종이 지도에 주민이 직접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표시하고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은 커뮤니티와 맵핑의 합성어로 집단지성에 기반하는 참여형 지도 제작 개념이다. 오픈맵(Open Map)은 그 결과로서 보통 두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공간적/지역적 단위의 사회 조직체 또는 공통적 관심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 실제 지도를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즉, 넓게는 개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협력하여 만드는 지도제작이라는 뜻까지 포함한다.

제작법

- 지역문화, 마을문화와 로컬리티
 - 마을과 로컬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고 마을 공동체만이 가지는 힘과 문화적 역량에 대해, 그리고 마을조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지역문화와 걷기, 조사
 - ‘진정한 문화기획은 걷기부터!’ 생활권 단위 자기가 살아가는 마을과 지역을 걸음으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은 문화가 개발되어야 할 캔버스라 아니라 당사자 주민들의 삶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 커뮤니티 맵핑 실습
 - 동별 지도 위에 문화 공간, 공원(오픈스페이스) 및 생태, 커뮤니티 공간, 축제 공간, 동아리, 혐오 시설 등을 표시하고 개인/마을/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화/교육/복지/도시 활동 아이디어를 기록해본다.





5. 도시의 자원 찾기 (자원조사 실습)

2019. 8. 27(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사회 활동은 필수적 활동을 통해서든 선택적 활동을 통해서든 일어난다. 사회 활동은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의 존재에 의존한다. 즉 다른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 옆을 지나 가거나 서로 바라볼 때 사회적 교류가 일어난다. 사회 활동은 놀이, 인사, 대화를 비롯해 함께 참여하는 활동,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타인을 바라보거나 타인의 말을 듣는 수동적 접촉을 포함한다. (안 겔, *New City Life*, 2000)

안 겔과 같은 공공생활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계 중심의 활동을 매개함으로써 도시가 활력을 찾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인본주의적 도시계획은 거대한 건물이 아닌 인간 친화적 도시 정책을 정립하고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거주하고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핵심은 도시의 자원 중 상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람의 행동 양식, 활동, 관계까지도 기존의 공간, 축제 등의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자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벌레의 눈으로 바라보면 타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문화활동가라면 응당 조사하고 관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제작법

- 자원조사 방법론
 - 지역 문화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관찰법, 설문조사, 인터뷰, 구술조사, 사진/영상 기록법 등을 학습하고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해본다.
- 자원 기록표
 - 지역 문화를 구분하는 '지역문화 테이블'의 구분에 따라 자신이 속한 동네, 마을의 자원을 생활문화, 시민문화 차원까지 기록해본다.
- 모둠별 발표
 - 모둠별 커뮤니티 맵핑 내용을 공유하고 모둠별 특성을 추출한다.



6. 마을별 기획서 작성

2019. 9. 3(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최근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등 마을 단위의 당사자 주민 중심의 공공 계획이 주목 받고 있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로서 공공주도의 계획수립, 물리적 환경 개선, 획일적인 도시경관, 단기적인 사업추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1) 주민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행정·전문가는 돕는 역할, 2) 사회,경제,문화, 환경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 개선, 3)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장소성을 만드는 것, 4) 지역과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요구한 자유는 매우 소극적인 경제권과 시민권에 그치지 않았다면, 이제 마을 활동가가 주목할 자유는 좀 더 시간과 공간을 넘는 자유여야 한다. 즉, 기존의 행정의 시간적 흐름에 맞춰 동원되거나 사용되었던 것을 넘어 이제는 주민과 공동체의 문화적 시간을 요청해야 한다. 비슷하게 공간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체로서 도시의 공간을 문화적 활동으로 채우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작법

- 마을별 주제 선정
 - 상기 브레인라이팅, 커뮤니티 맵핑 과정 등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다.
- 기획 의도, 목적 및 기대효과
 - 기획은 구체적 의도와 목적이 있을 때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목적을 넘어 지역,마을,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고 그 기대효과도 공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분담, 일정, 공간, 예산 계획 수립
 - 기획이 좋아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최대한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Part 2 사람의 표정

1. 복구 마을공동체 브리프 행복한마을공동체 복구인 김지형 대표
2. 칠곡 인문학마을 특강 지역문화기획자 이재민
3. 경대 서문에서 세상 결눈질하기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대표
4. 팔거천과 여성영화제의 공통점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전) 장지은 대표
5. 기획은 Now Here 정신 (사)인디053 신동우 기획팀장
6. 좋은 먹거리와 식문화 강북희망협동조합 강혜진 대표

1. 복구 마을 공동체 브리프

2019. 9. 3(화) 14~17시 / 행복복구문화재단 / 행복한마을공동체 복구인 김지형 대표

활동 내용

본격적인 마을 활동가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우리가 밭을 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의 도시, 복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복구의 지역문화, 문화활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행복한마을공동체 복구in 김지형 대표를 초대했다.

그는 복구 마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활동으로서 복구어린이날큰잔치,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팔거천지킴이 활동을 소개하였고, 그외에도 도토리도서관, 도시농업사업, 얼썬패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조직화하는 방법의 어려움과 보람을 공유했다. 향후 공유경제 사업 등 사회문화형 활동을 통해 회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복구인의 운영방안 및 새로운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생각도 공유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로서, 관심자로서, 활동가로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작법

- 마을 전문가 강연
 - 지역, 마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초대하여 우리가 평소 알지못했던 지역,마을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 마을 유래와 역사 조사
 - 마을의 지명, 유래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설화와 전설 속에도 많은 상상의 요소가 숨어있다.
- 마을 자원 체계도 작성
 - 지역,마을의 자원을 사람, 활동, 단체/동아리, 공간 등의 요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보고 그 중 자신이 문제로 파악하는 점,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싶은 점을 추출한다.



2. 칠곡 인문학마을 특강

2019. 7. 30(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지역문화 연구자 이재민

활동 내용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 대해 조금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 마을과 비교하여 볼 때이다. 금번 프로그램에서는 북구의 지명과도 연관이 있는 칠곡군의 인문학마을 사업의 사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인문학마을, 지역의 사람과 활동, 공동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이재민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BK21플러스사업팀 교수를 초대하였다.

칠곡군 인문학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칠곡군의 평생학습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마을단위 문해교실 등 공동체를 통합하여 칠곡군 단위의 지역문화 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미 10개 이상의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해내고 있었다. 이에 2012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사업에 처음으로 인문학이라는, 삶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마을 중 10개의 공동체 능력이 있고, 마을 리더가 성실하고, 공동체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예비 마을을 선정하였다. 세미나, 강연, 워크숍 등 마을리더 교육 과정을 거쳐 1개 인문학마을이 선정되었고, 5년간 총 25곳의 귀한 인문학 마을이 생겨났다.

이들 마을은 거창한 활동과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 '생각밥상'이라는 밥을 함께 먹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해 주민간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마을 콘텐츠도 마을신문, 주민연극, 도자기 빛는 마을, 그림 그리는 마을, 합창단 마을, 청소년-할머니 세대 교육 등 소소하고 자발적인 활동에서 출발했다.

산업화로 인해 우리나라 공유의 마을 중심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칠곡의 30여개 마을에서 풍물단, 문해교실, 마을연극단, 마을축제 등이 활동하는 인문학마을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북구도 작지만 좀더 끈끈한 마을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상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작법

- 비교 사례지역 조사
 - 관심있는 활동 등을 하고 있는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개괄적인 내용과 특성을 파악한다.
- 유사 사례 분석
 - 선택한 사례 지역의 시작 계기, 활동가, 특징적 활동과 애로사항을 분석한다.
- 우리 마을, 지역에 적용하기
 - 상기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마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 사업을 정리해본다.



3. 경대 서문에서 세상 결눈질하기

2019. 9. 10(화) 14~17시 / 내마음은콩밭 /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대표

활동 내용

경북대학교 서문에 위치한 북구 마을기업 내마음은콩밭에서 기획자 특강을 듣기 위해 모였다. 내마음은콩밭은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기반으로 이런저런 문화적 활동을 하는 젊은 커뮤니티디자인 기획 단체이다. 특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주목해서 스스로 단기 클래스나 공연도 열고, 플리마켓, 생활문화 공동체 발굴 및 네트워크 사업도 다양하게 있다.

미술학도였던 서민정 대표는 2013년 내마음은콩밭을 설립한 이래 5년여 만에 많은 성과를 내며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경북대 서문골목축제를 기획, 매년 행사를 이어가면서 지역문화예술계와 무엇보다 지역 상인, 대학생 등과 호흡하고 있다.

자신만의 콩밭을 일구는 사람들이나 마음속 콩밭을 간직한 사람들이 함께 놀고 배우며 성장하는 문화학교 '콩밭학교', 유흥의 소비문화가 아닌 우리가 배우고 만들어보는 놀이문화, 지역의 자원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놀장', 워크숍, 코워킹 등을 통해 콩밭이 자라나는 공간 '콩바테' 등을 운영 중이며, 그 외에도 어반그레이트, 대구N플리지 등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과 연계한 커뮤니티 디자인 활동도 하고 있다. 같은 북구에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제작법

- 마을의 문제, 장점 파악
 - 지역문화는 단순한 개인의 문화활동을 넘어 사회적 활동, 공적 활동으로 연결될 때 그 의미가 확산될 수 있다. 마을에서 문화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장점, 자원을 파악한다.
- 마을 작은 공간 조사
 - 지역문화는 삶의 터, 장소를 기반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에 작지만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공간, 유휴공간, 오픈스페이스(공원, 길, 다리 밑 등)를 조사해본다.
- 핵심 활동 선정
 -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해본다. 원칙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지주의 땅에 경작을 하던 소작농들은 한 해의 수확물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소작농들은 자투리 땅에 콩을 심어두었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은 모두 소작농들의 것이었습니다.



수입이 어찌나 쏠쏠하던지 소작농들은 주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항상 콩밭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속담의 '콩밭'처럼 저마다 내가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나의 관심사,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콩밭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각자의 작은 콩밭들이 만나고 그 콩밭들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도 만들어 질 것이라 믿습니다.

4. 팔거천과 여성영화제의 공통점

2019. 9. 17(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전) 대표/대구여성영화제 활동가 장지은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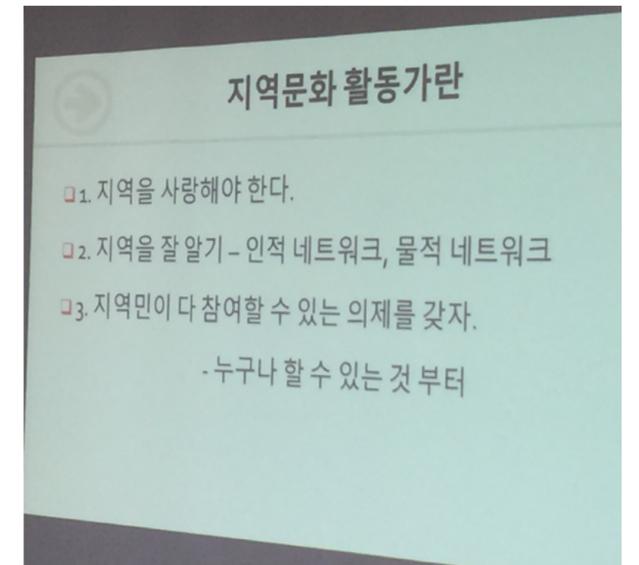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최근에는 생활문화의 개념에 대한 담론 논쟁이 있다. 생활, 일상에서 이뤄지는 동아리 활동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생활문화란 '본질적으로 공동체(Community), 사회정의(Justice), 예술(Art), 공공선(Public Virtue) 등과 같이 경합의 대상이 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에 해당한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지역에서 생활문화와 사회문화예술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전) 대표/대구여성영화제 장지은 활동가를 통해 그 차이와 유사점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생활문화, 지역문화의 시작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이후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해오고 있는 팔거천 지킴이 활동, 대구여성영화제(DWFF) 등의 활동을 공유했다.

가까운 팔거천에 수달도 보호하고 팔거천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 분들의 예쁜 이야기가 나왔다.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던 이야기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니 참 의미있는 활동들이구나,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EM을 아이들과 만들어서 팔거천에 뿌리는 아주 작은 행동과 실천도 문화가 될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팔거천지킴이도 여성영화제도 우리 지역에서 '소외'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니 되려 '사람'이 보이게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제작법

-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단체 파악하기
 -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의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단체를 조사한다.
- 사회문화예술 활동 참여하기
 - 단체 등의 강연,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본다.
 - 예) 여성, 아동, 환경/생태, 지역문화 등 단체
- 작은 실천하기
 -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생태, 인권 등의 분야에서의 작은 실천을 해본다.



5. 기획은 Now Here 정신

2019. 10. 1(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사)인디053 신동우 기획팀장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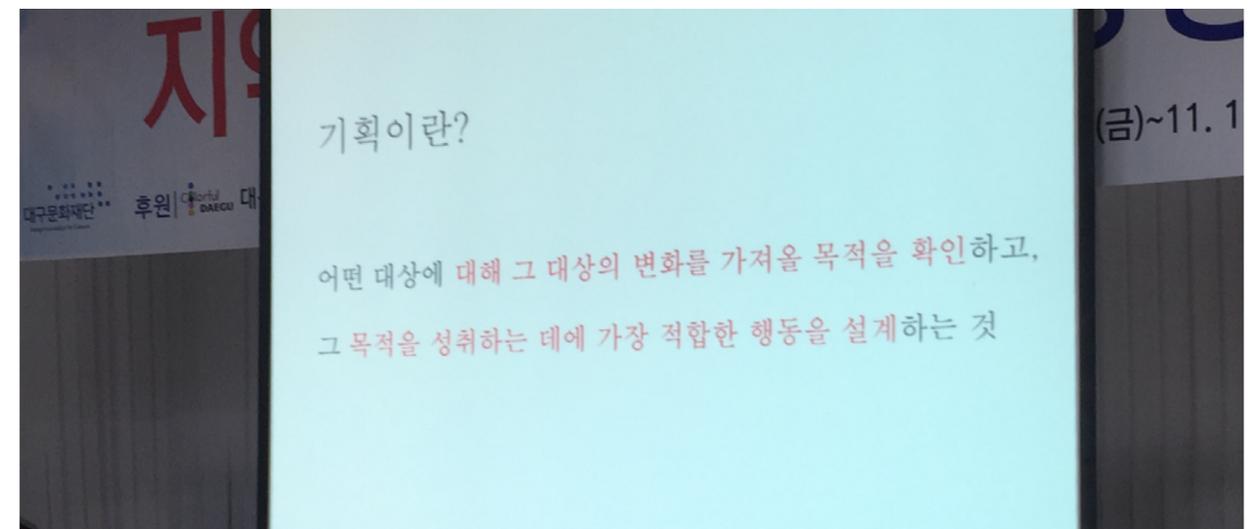
문화활동이 정말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획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계획이 그러하겠지만 기획의 방향이 문화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문화활동가로서의 기획의 시작은 바로 사람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속성에 있다.

대구 지역과 경북 등에서 인디자립 문화, 거리문화, 마을만들기, 청년문화 등의 다양한 문화기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 (사)인디053의 신동우 기획사업팀장이 기획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구 주민이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북구라는 도시에 빚대어 생각해보았다. 그는 기획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는 활동이 다 기획의 대상, 목적이라고 풀었다. 단, 마을, 지역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변화를 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지역문화활동가의 차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지역번호 053을 단체명에 붙이고 있는 이 전방위독립문화예술단체에서 그는 대구에서는 인디음악과 공연 기획으로, 또 칠곡에서는 인문학마을 기획으로 북구 언저리를 떠돌고 있었다. 또한 최근 의성 안계면에서 오래되어 기능을 다한 목욕탕을 청년 작가 등이 새롭게 해석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전시와 공연도 하는 '예술의성'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획이란 **Nowhere** (아무데도)를 **Now Here** (지금 여기)로 바꾸어 내는 관점과 시도라고 설명하였다.

제작법

- 기획의 대상 선정하기
 - 내가 하고 싶은 문화활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 기획의 필요성과 목적
 - 지역에서 본 기획이 필요한 이유를 개인, 마을, 지역 차원에서 서술한다.
 - 기획의 공공적, 지역적으로 필요한 이유, 사회적 가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 사적활동의 결과가 공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기획의 6하 원칙 기술
 - 선정한 기획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누가(who), 무엇을(what), 왜(why), 어디서(where), 언제(when), 어떻게(how)



6. 좋은 먹거리와 식문화

2019. 10. 8(화) 14~17시 / 강북희망협동조합(삼백찬가) / 강북희망협동조합 강혜진 대표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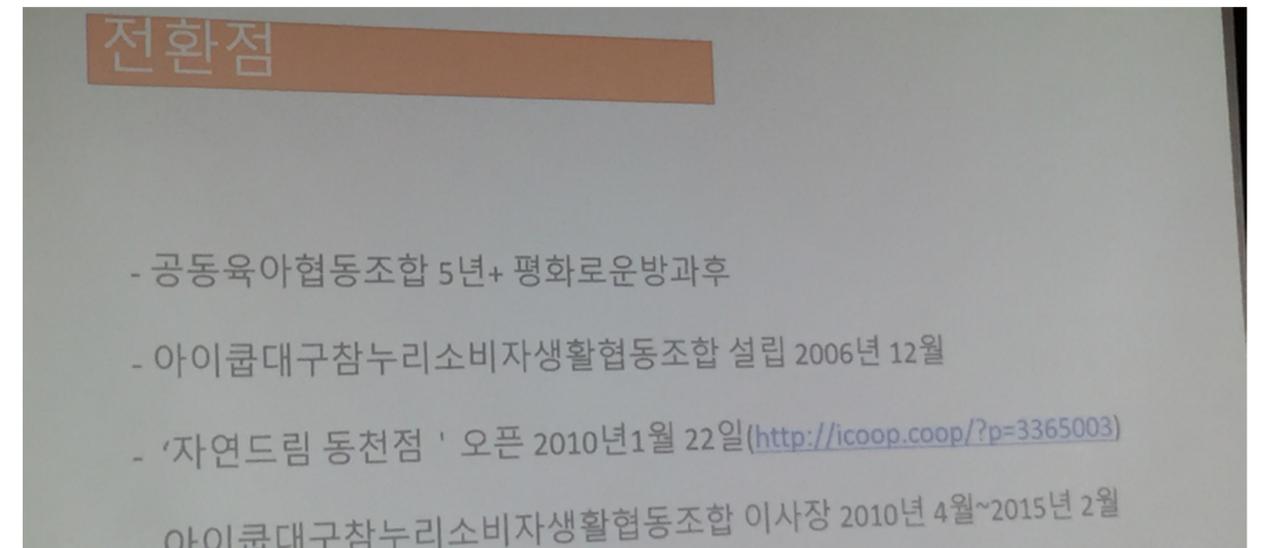
최근 마을문화가 부각되면서 덩달아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친환경 먹거리, 생태, 교육, 육아 등이다. 북구에서도 스스로가 아이들이 흙을 밟고 경쟁하지 않고 조금은 더 아이들답게 교육받기를 꿈꾸던 한 엄마가 있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지금은 친환경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서 좋은 먹거리를 나누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식당에 이어 반찬카페를 열었다.

강북희망협동조합은 북구 3지구에 위치한 반찬카페를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시작점은 아이로 시작하여, 2008년 즈음에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자신의 관심과 맞아 들어가면서 무항생제 한우뼈탕을 파는 식당을 합지공원 옆에 차렸다. 많은 힘든 점이 있었지만 300명의 조합원이 뒤에 있다는 든든함과 좋은 먹거리를 고민한다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지금은 반찬카페를 열어 좀 더 많은 주민과 좋은 먹거리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작은 문제의식과 관심이 지역의 변화에 초석이 되는 것이었다. 그가 상상하는 북구는 조금 더 행복해보였다.

제작법

- 관심있는 사회문제, 지역 이슈 선정하기
 - 문화 활동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주제를 선정한다.
 - 정치적 이슈보다는 삶의 이슈, 지역과 마을의 이슈를 선정한다.
-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 찾아보기
 - 지역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찾아본다.
 - 방문하거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 문화활동과 지역문제를 연결해보기
 - 지역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지역문화활동을 기획하기
 - 지역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략 수립하기



Part 3 일상의 기억

1. 르포 인터뷰 '구암동 고분군'
2. 축제 탐방 '금호강바람소리길'
3. 문화,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
4. 미디어라는 공간
5. 도시 감성 디자인

1. 르포 인터뷰 '구암동 고분군'

2019. 9. 24(화) 14~17시 / 운암지~구암동 고분군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북구에는 우리 곁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과 생태유산이 펼쳐져있다. 과연 북구는 농촌과 도시적 삶의 중첩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북구는 크게 7개의 '북구 문화유산 탐방 권역'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1. 함지산 고대문화 권역, 2. 동화천 시간여행 권역, 3. 연암산과 침산의 역사산책 권역, 4. 팔거천 마을유적 나들이 권역, 5. 금호강의 누정과 재사 권역, 6. 도덕산 자락의 충신·효자 권역, 7. 칠곡향교와 칠곡도호부 권역 등이다.

가을이 오는 문턱의 계절에 우리는 1. 함지산 고대문화 권역을 걸어보기로 했다. 함지산 고대 문화 권역은 1,500여년 전 대구 칠곡지역에 있었던 '팔거리' 세력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고분군과 산성 및 취락이 분포하는 곳으로, 사적 제544호로 지정된 구암동고분군과 대구시 기념물 제6호의 팔거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해설사 선생님의 친절한 해설을 들으며 운암지를 떠나 고분군 1호분까지 둘러보고 돌아왔다.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인 만큼, 많은 분들이 역사 문화를 결합하여 산책로 이름 짓기, 영상 기록하기, 고분군 스토리텔링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 놓았다. 함께 산책하니 조금 더 친해진 듯 하다. 북구도, 마을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온 듯한 하루였다.

제작법

- 함께 걷기
 - 마을 기획의 시작은 걷기부터! 아무 생각없이 정처없이 걸어본다.
 -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것들, 작은 이야기와 소리에 집중해본다.
- 기록하기
 - 지역 주민의 일상의 삶, 행동, 표정, 말 등을 기록한다.
 - 평소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다.
- 기획에 반영하기
 - 상기 걷고 경험한 것을 기획에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지역문화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2. 축제 탐방 '금호강바람소리길'

2019. 9. 28(토) 12~15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지역문화의 산실은 바로 축제이다.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를 함께 즐겨보고 지역문화 기획에 아이디어를 발굴함은 물론, 서로 간의 친목도 쌓기로 하고 축제장에 모였다. 올해로 5회째인 본 축제는 2015년 시작되어 대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한 한가을 시원한 바람과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축제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가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문화축제이다.

무엇보다 시선을 끈 것은 도시문화축제임에도 동별 부스가 마련되어 동별 만남의 장이 있었다는 점이였다. 동 주민은 무료로 식사나 다과도 나눌 수 있게 배려했다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문화동아리, 작은 단체 등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난립된 축제보다는 좀 더 북구라는 지역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다.

축제장 끝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꿈꾸는공작소에서 운영하는 예술공방과 놀이터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동물 인형과 놀이기구, 갖가지 예술작품이 신기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 금호강 바람에 이리저리 춤을 췄다. 지역 주민이 서로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장으로서 축제, 이 축제가 좀 더 실효적으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함께 나눠보았다.

제작법

- 마을, 지역 축제 방문하기
 - 지역의 축제, 마을 축제를 방문한다.
 - 큰 축제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 축제도 관심을 가져본다.
- 인근 지역 축제 벤치마킹하기
 - 인근 도시의 축제를 방문하여 비교해보고 벤치마킹한다.
 - 최근에는 작은 마을축제, 플리마켓형 축제도 많이 생기고 있다.
- 기획 반영하기
 - 지역문화는 공유와 소통이 기반이다.
 - 축제에서 작동하는 공유와 소통, 나눔의 방식을 기획에 반영해본다.





3. 문화,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

2019. 10. 15(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내용

지역문화는 마을 단위, 생활권 단위의 사람, 활동, 장소를 연결하여 그간 주목받지 않았던 도시 문화의 주역으로 시민과 일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우리 문화 정책도 다른 정책과 유사하여 하향식으로 기획되고 실행만 지역에서 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다소간 부족하지만 문화적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아이디어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문화도시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거꾸로 바꿔보자는 문화적 시도이다.

문화(文化)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 문화란 세계관, 사회사상,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지만, 우리 지역문화에서는 명쾌하다. 바로 사람과 일상, 삶의 방식이 문화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오면서 우리 일상과 삶은 만들어진 문화(대중문화, 문화산업 등)에 곁을 내주고는 잠시 비켜있었다. 사람이 빛나는 도시는커녕 사람이 지워진 도시가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도시문제가 생겨났다.

북구는 이상의 도시문제(City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가진 도시인가? 사람, 일상, 삶이 빛나는 도시로서 자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북구의 문화도시로서의 방향성과 관심을 토론하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문화적 도시는 무엇인가요?

제작법

- 강의 : 문화, 도시 그리고 문화도시
 - 문화란 무엇인가? 도시란? 공동체란? 문화의 속성을 살펴보고 지역문화 차원에서 왜 사람,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며 특히 문화적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이러한 작은 문화적 인력, 활동, 생태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 서로의 생각을 청취하고 공유한다.
- 개인 발표
 - 내가 생각하는 문화적 지역, 문화도시란 무엇인지 개인 또는 팀별 기획서를 발표하여 공유한다.

4. 미디어라는 공간

2019. 10. 22(화) 14~17시 / 행복복구문화재단 / 신무환 (레브 대표)

활동 내용

영상은 이미지다. 이미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거나 혹은 현실이 아닌 상상의 세계를 표상화(representation)한 것이다.

영상은 글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영상은 두 개념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 머릿속이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경험이 신경세포 다발 속에 축적된 이미지로 뇌 속에, 마음속에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카메라가 만들어 낸 이미지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영상 콘텐츠라고 하면 비록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반추상적인 형태로 우리의 뇌 속에, 마음속에 존재하는 스토리화한 영상(연출)과 카메라와 편집 과정을 통해 스토리로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이런 영상의 개념에는 몇 가지 키포인트들이 등장한다. 이 키포인트들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억·경험, 뇌·마음, 카메라, 편집, 모니터, 스토리, 연출 이들 영상의 구성 요소는 각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상과 우리의 기억·경험과의 연관성이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시신경을 통해 뇌의 적절한 부분에 기록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뛰어난 능력은 이 시신경의 기억을 상상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변형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뛰어난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좋은 카메라를 살 것이 아니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영상은 여러분의 뇌 속에 있고 여러분 뇌 속의 영상은 상상력이라는 무한대의 창의성을 통해 예술화되든지 극단적인 창의성 형태로 표출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 기록하는 것이 영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력이라는 가공 장치를 통해 변형시킨 것이 카메라를 통해 기록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은 여러분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VIDEO MAKING을 하기위해..

영상은 소리(음악)와 그림(연속사진) 그리고 글자(텍스트)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어떠한 소재에도 소리와 이미지, 그리고 정보가 담겨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소재를 **what?** **how?** **why?**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한다

제작법

내용정리

- 마을, 지역에 영상 주제 정하기
 - 마을의 일상, 자연, 문화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고민해본다.
 - 자신이 가장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기록의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한다.
- 영상 기록하기
 - 기록의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한다.
 - 영상으로 보여주고 대상을 천천히, 깊게 기록한다.
- 영상 제작 및 공유하기



5. 도시 감성 디자인

2019. 10. 29(화) 14~17시 / 행복복구문화재단 / 정유영 (만북기획 대표)

활동 내용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초기에는 산업혁명에 의해 도입된 기계를 이용해 마구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품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이었지만 현대에는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만이 아니라 물건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역할로 확대되었다.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결국 내부 구조와 배치, 기능에 관한 근본 내용까지도 손대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디자인은 인간이 생산, 사용하는 물건과 관계되는 총체적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가는 영역이 되었다. 이렇듯이 디자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디자인은 유형의 물건에 관련된 조형 작업뿐 아니라

무형의 개념, 즉 인간 생활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로 그 범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

더욱 발달 되어가는 디자인의 영역으로 공공생활디자인 및 서비스디자인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은 공익적인 분야에 시스템부터 하드웨어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의 의견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고, 점점 발전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깊게 반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영역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작업들은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 지역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역시민 참여 프로젝트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담기기 위해선 서로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염려에 두시고 의미있는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제작법

내용정리

- 마을, 지역의 대표적인 이미지 정하기
 - 마을의 일상, 자연, 문화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고민해본다.
 - 자신이 가장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사진 기록하기
 - 기록의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한다.
- 달력 제작 및 공유하기



디자인과 생활문화

What is Design?

초등학생이 필기도구 하나를 살 때도 '좋은 디자인'
국토를 재개발 하는 광범위한 미래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할 경우에도 '좋은 디자인'
흔히 쓰이는 일상 용어가 된 디자인은 무엇일까?

Part 4 당신의 이야기

1. 이야기 제작 공방
2. 성과 공유회
3. 수료식

1. 이야기 제작 공방

2019. 11. 5(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 기억과아카이브 강구민

활동 개요

20회차의 긴 장고의 시간을 지나왔다. 지역문화활동가의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통해 자신의 관심과 기획의 방향성을 조금은 더 확장적으로, 세밀하게 다듬어보았다. 함께 걷는 과정에서 느슨하게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상상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엉뚱한 사람이 나만 있는건 아니구나하는 안도감도 느꼈다.

“배우는 절대 늙지 않는다!” ‘Forever Green 연극단’을 작게 시작해보겠다는 기획, 동서변으로 나누어 있는 마을을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만들기 위해 ‘동서변 런던브릿지’ 마을축제를 하겠다는 기획, 북구만의 아름다운 산에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붙여주고 어루만져주겠다는 ‘함지산 한마음 등산 모임’, 알려지지 않은 마을과 북구의 작은 아름다움도 발견하여 알려보자는 ‘구암가자! 365고!’, 모노레일 역 주변으로 하는 ‘미니 갤러리’, 지역의 이야기와 사람을 담담히 그려내보겠다는 ‘북구 행복한 얼굴’ 등의 기획이 공유되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서로 박수와 응원으로 다음의 행보를 지지했다.

이야기는 기억을 재조직화하여 조금은 더 오래 기억되도록 한다고 한다. 쉽게 잊혀질 우리의 작은 이야기, 마을의 상상과 활동이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근사한 이야기가 되어 기록될 것이다. 우리 북구가 근사한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4개월의 이야기 공방은 그렇게 끝을 향해가고 있었다.

제작법

-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서 작성 (2페이지 기획서)
 - 그간 교육 과정을 통해 구체화한 자신의 기획을 2페이지 기획서로 작성한다.
 - 체계적인 기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내용은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 개인 발표
 - 개인 또는 팀별 기획서를 발표하여 공유한다.
- 연계 방안 모색
 -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작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크라우드 펀딩 등을 연계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2페이지 기획서 양식]

구분	이름/단체명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5. 추진 주체 (느슨하게 연계 가능한 단체, 주체도 포함)

구분	내용	이름/단체명	역할
기획추진단	기획, 실행 등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문화 인력		
연계 주체	음향, 제작, 강사 등 특수한 분야에 참여하는 전문성을 가진 주체		
연계 단체	행정, 단체, 인근 교육/복지/경제/문화 등 분야 연계 가능한 주체		

6. 예산 (안) *예시 차원

비목	내용	산출근거	예산
인건비	기획/보조 인력 기간 동안 활동 및 주요 제작자/진행자/강사/촬영자 등 참여분		
홍보/모집비	홍보를 위한 디자인, 포스터/리플렛/현수막/웹 포스터 제작비 및 워크숍 등 회의비		
재료/제작비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료/도구 구입비, 자료 구입비, 음향 렌탈비, 디자인/출판비, 체험 재료비 등		
합 계			

7. 추진 일정 (준비 과정도 일정에 포함시키기)

세부 사업	내용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8. 향후 방안 (강사 코멘터리)

1	
2	

제목	Forever Green 연극동아리	이름/단체명	김정희 (읍내동)
----	---------------------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 영원한 청춘, 배우는 늙지 않는다!
'Forever Green 연극동아리'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 우리 지역에 활동 중인 2팀의 극단과 함께 Forever Green이 더해 활동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대구의 '생활연극'의 메카로 조성
- 세대별(청소년, 은퇴 실버세대 등) 연극을 해보고 싶은 희망자가 다수 있음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 주제 : Forever Green 연극동아리
- 대상 : 지역 주민
- 기간 : 2020년 상반기 발족 후 지속적으로
- 거점 장소 : 어울아트센터
- 모집/홍보 : 2020년 1월~2월
- 결과물 및 공유 방법 : 년 1회 정기공연, 버스킹 공연(이태원 거리 등 연계)
- 기대효과 : 세대별 소통과 은퇴한 실버세대의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지역민의 삶과 지역 사회에 보탬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 1단계 참가자 모집 > 2단계 오리엔테이션 > 3단계 대본 확보 및 연극 연습 > 4단계 공연 > 5단계 워크숍

5. 예산(안)

- 총 300만원 (촬영비 등 60만원, 워크숍/팸플릿 80만원, 연극관람 및 무대장치 160만원)

6. 향후 방안

-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출품질 향상 및 지역민 호응도 제고 방안 모색
-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연극 콘텐츠로 발굴 노력 (이태원 소설, 시민 일상 소재 등)

제목	런던 브릿지? 동서변 브릿지!	이름/단체명	송희정 (동변동)
----	------------------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 런던 브릿지? 동서변 브릿지!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 악기, 댄스, 팝송 등의 음악을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함
- 이를 통해 동, 서변동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상 : 지역 주민
- 기간 : 2020년 매월 마지막주(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9시
- 거점 장소 : 동변교 다리 밑 (현재 자발적으로 공연, 연습이 있음)
- 모집/홍보 : 다리 위 끝 피켓 홍보
- 연계 전략 : 동화천 생태 걷기 프로그램, 동서변 만남 플리마켓 등
- 현재 발굴팀 : 동변초 방송댄스팀, 바이올린팀, 서변동 밸리댄스 수강생, 북구 청소년회관 오카리나팀, 동네 색소폰 연주자, 팝송 연주자 등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 1단계 운영팀 모집 > 2단계 기획 회의 > 3단계 참가자 모집 > 4단계 공연 > 5단계 의견 반영

5. 예산(안)

- 총 250만원
(회의비 60만원, 사회자 및 보조인력 30만원, POP피켓 10만원, 음향 및 조명 150만원)

6. 향후 방안

-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팀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생태 걷기 프로그램 등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제목	함자산 한마음 등산 모임	이름/단체명	박인호 (구암동)
----	---------------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 함자산 한마음 등산 모임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 북구만의 아름다운 함자산과 여러 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을 문화활동과 접목
- 평소 걷기만 하던 산책로에 이름을 붙이고 청소하는 등 더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도록 함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상 : 지역 주민 중 등산에 관심있는 주민 (현재 관심있는 주민 15명 정도 확보)
- 기간 : 모집(2020년 1,2월), 산행(분기별 1회씩 총 4회)
- 모집/홍보 : 부구청 소식지, 도로변 현수막(8개 내외) 등
- 대상 등산로 1) 1구간 노곡동~함자산 정상. 2) 구암동 가구골목 뒤 백련사~정상
3) 운암지 야외무대~ 정상, 4) 운암지 인공폭포 뒤 ~정상
5) 윗골동산 ~ 정상, 6) 서변동~정상, 7) 조야동~정자쉼터~정상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 1단계 모임 모집 및 홍보 > 2단계 기획 회의 > 3단계 등산로 이름 붙이기 > 4단계 등산(청소)
> 5단계 의견 반영

5. 예산(안)

- 총 200만원 (회의비 50만원, 모집 현수막 20만원, 피켓 30만원, 음료 및 다과 100만원)
* 모집 및 1회(봄) 예산임

6. 향후 방안

- 단순한 등산 동호회와 구별되는 점이 제목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북구의 마을산 중 드러나지 않은 산도 발굴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 등

제목	구암가자! 365고!	이름/단체명	박현주, 김완숙 (구암동)
----	-------------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 ‘구암가자! 365고!’ 우리동네 문화탐방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곳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보고자 함 (퐁네프 다리 같은 운암교)
- 도시철도 3호선(일명 스카이 열차) 모노레일을 타고 운암역의 플라타너스가 있는 거리 등 북구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여 제시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상 : 지역주민 및 타 지역 여행객
- 기간 : 모집(2020년 1,2월), 연 4회 목표
- 장소 : 운암역에서 수변공원까지
- 모집/홍보 : 현수막, 홍보지, 지역 케이블 방송 등(2019년 12월~2020년 3월)
- 활동 방안 : 1) 운암지 문학토크 및 작은 음악회
2) 모노레일타고 북구! 여행 프로그램 운영(운암역~구암공원~운암지~고분군 등, 2시간)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 1단계 포스터 제작 및 홍보 > 2단계 영상 제작 및 홍보 > 3단계 걷기 프로그램 운영 > 4단계
의견 반영

5. 예산(안)

- 총 200만원 (회의비 30만원, 모집 현수막 20만원, 홍보지 30만원, 방송 50만원, 문학토크 및 음악팀 70만원)

6. 향후 방안

- 도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으로서 특성을 살린 기획이 더해진다면 좋겠음
- 참여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감성적 문구 등)
- 계획처럼 이외에 ‘북구를 감성적으로 즐기는 방법’등의 확장적 고민이 있다면 좋겠음

제목	모노레일 미니 갤러리	이름/단체명	김미순 (태전동)
----	-------------	--------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 지하철 주변이 전시장이 된다 ‘모노레일 미니 갤러리’
-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 모노레일은 북구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임
 -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는바 역사와 역사 주변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주민 작품 전시 등을 연계하여 일상 공간에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
-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상 : 지역주민 및 타 지역 여행객
 - 기간 : 월별 전시 등을 추진
 - 장소 : 북구에 속한 도시철도 3호선 역사(운암역 등)
 - 활동 방안 : 1) 모노레일 미니 갤러리 (시민, 청소년, 아동 작품을 전시)
2) 마을 소식 공간(하고 싶은 이야기, 동호회 소식 등을 적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함)
3) 생태예술존 (미니 버스, 갤러리 등을 이용하여 팔거천 등의 생태적 요소를 표현)
-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 1단계 활동 기획 > 2단계 역사와 협의 > 3단계 소식 공간 및 갤러리 조성 > 4단계 의견 반영
- 5. 예산(안)**
 - 총 200만원 (회의비 30만원, 모집 현수막 20만원, 소식공간 조성 50만원, 작품 전시 100만원)
- 6. 향후 방안**
 - 작은 플리마켓 등에 관심있는 주민을 연계하여 확장
 - 북구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 전시 등이 있다면 의미가 더 있을 것임 (북구의 일상 사진전 공모 등)

제목	북구 행복한 얼굴	이름/단체명	이지탁 (태전동)
----	-----------	--------	-----------

- 1. 기획 제목** (이해도와 관심도를 끌기 위한 부제 등을 더하기)
 - 지역의 이야기와 사람을 그리다 ‘북구 행복한 얼굴’
- 2. 기획 의도**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반영, 자신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 관점)
 - 태전동만해도 70이 넘어서도 마을을 산책하면서 인사하는 할아버지 등 수많은 행복한 얼굴과 이야기가 있음
 - 기획자는 평소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바, 태전동 및 북구의 평범한 주민들의 얼굴과 일상을 그려내어 책으로 만들고 이를 전시 등으로 주민과 나누고 싶었음
- 3. 기획 내용** (주체, 대상, 기간, 장소/거점, 모집/홍보, 결과물 및 공유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상 : 지역주민 중 행복한 얼굴을 가진 분들
 - 기간 : 2020년 상반기 중
 - 장소 : 마을을 돌아다니면 대상 발굴
 - 활동 방안 : 1) 행복한 얼굴 인터뷰 (10명 내외)
2) 책자 발간
3) 전시회 및 북토크쇼
- 4. 사업 내용 개념도** (그림/도식으로 표시)
 - 1단계 기획 콘셉트 확정 > 2단계 인터뷰 (10명 내외) > 3단계 책자편집 및 발간 > 4단계 북토크쇼
- 5. 예산(안)**
 - 총 300만원 (회의비 30만원, 인터뷰 감사비 100만원, 책자 편집 및 발간 150만원, 북토크쇼 20만원)
- 6. 향후 방안**
 - 그림과 함께 그림에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임
 -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북구 행복한 얼굴 100인 등을 동별로 그려간다면 좋은 지역 콘텐츠가 될 것임

2. 성과 공유회

2019. 11. 19(화) 14~17시 / 행복복구문화재단

활동 개요

작은 문화활동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법이다. 평소 소통의 계기가 없는 요즘 시대에 지역문화를 매개로 사람이 모일 수 있다면 지역문화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지역문화활동가 양성과정으로 4개월을 함께 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역문화활동가와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덧붙였다.

지난 4개월의 과정은 크게 1. 지역문화활동가에 대한 이해, 2. 지역문화 활동가 및 기획자 만남, 3. 지역문화활동 현장 답사, 4. 기획서 작성 및 실행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지역문화활동가로서 좀더 많은 만남과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추진하였다.

직접 목소리로 인터뷰를 녹음한 아카이브 영상을 시청하고, 지난 활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삶에서 빛나기를 응원했다.

제작법

- 공유의 장 마련하기
 -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 가족, 이웃 등을 초청한다.
 - 과정상 만들어진 영상, 책자 등을 소개한다.
- 작은 것도 공유하기
 - 활동의 과정 중심으로 공유한다.
 - 힘들었던 점을 응원하고 격려한다.



3. 수료식

2019. 11. 26(화) 14~17시 / 행복북구문화재단

활동 개요

겨울비가 내리고 이제는 마지막 수료식이다. 아니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다. 지역문화 활동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으로, 마을축제로, 그림으로, 걷고 등산하는 행위로, 우리는 지역에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나답게 만든다.

지역문화활동가 이전에 각자의 삶과 활동을 응원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가끔은 멀리서도 응원하고 생각해주는 1기 수료생이 되길 바란다.

제작법

- 수료식
 - 각자 과정을 수료한 소감을 나눈다.
 - 향후 나아갈 각자의 활동과 삶을 응원한다.
- 향후 의견 보태기
 -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제시한다.
 - 지역문화활동가, 지역문화 등에 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나누어 본다.

함께하신분 임시자리

함께하신분 임시자리

“당신을 기억하는 도시”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비싼 건물, 좋은 학교도 좋은 도시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좋은 도시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 빛나야 좋은 도시인 법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좋은 도시란 ‘당신을 기억하는 도시’이다. 도시라는 세계 안에서 당신이 좀 더 당신다울 수 있도록, 우리네 삶이 조금은 더 기억될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주고 힘을 보태주는 도시가 좋은 도시인 것이다.

북구는 어느 지역보다 더 생활문화, 시민문화의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 문화활동가 과정에 참여하여 주신 참여자 주민분들과 재단 활동가 분들로 북구가 기억되길, '사람이 빛나는 도시, 북구'를 만드는 문화활동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한다.

마무리소개 내용주세요

주관 대구문화재단 후원 Colorful DAEGU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행복북구문화재단

41447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관음동)

TEL.(053)320-5120 FAX.(053)327-1553

copyright © ?????????? 2019, Printed in Seoul, Korea